





서가풍경

보편문화를 향해 열린 '창'

서강대 차하순 명예교수의 서가

'서양사상사의 개척자' 인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71,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장)의 서재 한켠 책상 위에는 고정지가 한 묶음 놓여 있다. 지난 1976년 펴낸 《서양사 총론》(탐구당)의 개정판 원고다. 아직도 역사학도들에게 서양사 교과서로 널리 읽히지만 정작 본인은 아쉬움이 많았다.

“한국의 서양사학도가 서양사 통사를 집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만용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계몽적인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개정판에서는 당시 소략하게 다뤘던 현대사를 대폭 늘려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했기 때문에 '편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의 서재라 그럴까. 차교수의 서가는 그의 학문적 연대기가 꼼꼼히 기록된 거대한 '통사' 같다. 사상사와 역사 이론의 독보적 업적으로 평가받는 《형평의 연구》(일조각), 《역사의 본질과 인식》(학연사), 《현대의 역사사상》(탐구당) 등의 연구서와 번역서 및 평론집 십수권이 원로학자의 'his story' 를 증언하고 있다.

차교수의 서가를 이채롭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1990년부터 세계 문화교적 답사회를 주도하면서 동서양 문명권을 답사한 문헌과 영상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그의 세계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족문화는 세계문화와 만날 때 보편적인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편문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자기이해는 결국 비교의 관점에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 박천홍 거자

